‘쓰기-주체-되기’의 정치성

양경언*

차례

1. 서론 : 왜 이토록 격렬하게 ‘말’하는가
2. 거울을 되비추며 쓰는 여성들, 저항으로의 패러디와 아이러니
3. ‘쓰기-주체-되기’의 정치성
4. 결론 : 혐오와 공감이라는 뫼비우스의 띠에서 쓰기

<국문초록>

본고는 언어가 ‘불평등한 세상을 공고히 하는 권력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한 여성들이 ‘담론적 실천’으로 펼치는 ‘쓰기 활동’을 살핀다. 이때 주목하는 ‘쓰기’란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제한된 위치에 처해있는 이가 저 자신을 스스로 주체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쓰기 활동을 삼는 상황을 포괄하여 이른다. 여성은 남성의 문자를 다시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말할 장소를 개척하는 ‘쓰기-주체’로 거듭난다. 특히 승인된 학문의 장(場)이나 문학 장이 아닌, 제도의 가장자리에서 ‘쓰기-주체’들은 가부장제와 젠더 관습의 억압적 양태를 교란시키고 새로운 담론 지형을 형성하는 일을 훨씬 더 자유롭게 수행한다.

그와 같은 활동을 탐색하다보면 ‘메갈리아’에서 우세하게 활용되는 ‘미러링 화법’은 메갈리안들이 고안한 최초의 방식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쓰기-주체-되기’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때 여성의 역사 역시 다시 쓰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가 분석대상으로 삼는 ‘쓰기 주체’의 수행성이 발휘되는 장소는 학문 장 바깥에 있다. 우선 그와 같

* 서강대학교

은 활동을 1920년대 잡지『신여성』에서 살폈다. 남성이 근대적인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여성은 혐오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여성을 업신여기는 내용의 글이 잡지에 수록될 때, 여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패러디'와 '아이러니'를 활용하여 여성혐오를 일삼는 남성에 맞섰다.

이를 잇는 최근의 활동은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기 고백적인 서사를 사회적인 현안으로 전환해내는 쓰기 방식은 데이트폭력, 성폭력과 관련한 사안이 '누구의 문제인지'를 질문하는 방향으로 담론을 형성한다. 또한, '메갈리아'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여성들의 쓰기 활동은, 여성들이 스스로 젠더관계의 불균형과 관련한 여러 문제 사안에 실천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한다.

젠더 관계의 불균형적인 힘의 구도 속에서 삭제되어왔던 '저항-목소리들'을 역사의 한복판으로 출연시킬 때 확인할 수 있는 '쓰기-주체'는 첫째, '패러디' 및 '아이러니'를 활용한 화법을 구사함으로써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둘째, 그러한 방식을 통해 다른 이들의 격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말을 듣거나/읽는 이들과 대화적인 전환을 이루어낸다. '쓰기-주체'의 수행을 통해 이뤄지는 '대화적 전환'은 종국에는 '열린 구조'의 담론을 형성하는 정치성을 발휘한다.

핵심어 : 미러링 화법, 여성 혐오, 젠더 불평등, 쓰기, 메갈리아, 메르스겔러리, 메갈리안, 쓰기-주체, 쓰기-주체-되기, 신여성, 송화자, 패러디, 아이러니, SNS, 트위터

1. 서론 : 왜 이토록 격렬하게 '말'하는가

시사주간지『시사IN』418호에 실린 기사「'메갈리안'… 여성 혐오에 단련된 '무서운 언니들'」은 웹사이트 '디씨인사이드'(이하 '디씨')의 '메르스 갤러리'(이하 '메갤')[1]를 "거점" 삼아 여성에 대한 혐오발언(hate

speech)을 "거울에 비쳐 돌려주는 전략"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여성들 "메갈리안"에 주목한다.[2] 이 기사는 메갈리안이 의도적으로 택한 '미러링 화법(mirroring speech)'[3]이 "여성 혐오에 대한 독특한 반격"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그것이 "기획된 패러디"인지, "혐오의 악순환"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때 기사는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는 "2015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메갤에서 10건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개념 글'이 된 게시물 전체(2만7888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를 추적하여 메갈리안들의 주요 관심사를 식별하고, 담론의 지형을 그리겠다는 의도로 시도된 것이다.[4]

> 메갤 담론 지도의 기본 뼈대는 삼각 구도다. 삼각형의 세 꼭짓점은 각각 '여성' '남성' 그리고 '씹치남'이다. …(중략)… '이중잣대'와 '이기야'는 일베의 패러디다. '미개'와 '클래스'도 패러디 성격이 강하다. 메갤이 주장하는

1) '메르스 갤러리'는 홍콩으로 여행을 떠난 두 명의 여성에게 한국 사회에 퍼진 전염병 '메르스'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글들이 인터넷 사이트 '디씨인사이드' 게시판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을 여성 혐오의 일환으로 합의, 그에 반기를 든 이들이 여성을 혐오하는 이들의 방식을 따라하면서 여성의 입장을 피력하는 글을 따로 올리게 된 게시판을 말한다. 그러나 그 이후 이 게시판에는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글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게시판 사용자들은 '디씨인사이드'를 떠나 2015년 8월에 독립적인 사이트 '메갈리아'(http://www.megalian.com)를 마련한다. 본고에서 언급한 '메갤'은 '디씨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 를 지시하기 위한 용어이고, 2015년 8월 이후 '메갤'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는 공간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는 '메갈리아'를 활용한다. '메갤'과 '메갈리아'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메갈리안'으로 통칭한다.

2) 천관율, 「'메갈리안'… 여성혐오에 단련된 '무서운 언니들'」, 『시사IN』 418호, 2015. 9. 17,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50> (검색일 : 2015. 9. 20.).

3) 메갈리안이 활용하는 화법의 주요 방식인 '미러링'은, 비판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었던 발화자가 모방의 방식을 통해 비판을 던진 이에게 해당 비판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요컨대, '미러링(mirroring)'은 문자 그대로 거울을 되비추는 모방의 화법을 이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러링 방식이 주로 패러디와 아이러니가 형성하는 대화적인 긴장과 비평적인 구도의 담화상황에 의거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4) 천관율, 앞의 글, (검색일 : 2015. 9. 20).

> ‘미러링’이다 …(중략)… 삼각형 구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분석을 진행한 아르스프락시아 김학준 연구원은 오히려 삼각형 내부의 작은 대륙 셋에 주목했다. “흥미롭네요. 셋을 관통하는 일관된 정서가 있습니다.” 일관된 정서란 뭘까. 공포다. 범죄 공포, 결혼 공포, 그리고 시선 공포. 세 축으로 구성되는 공포는 메갈 담론지도의 속살을 이룬다 …(중략)… “메갈의 담론 구조가 일베의 그것과 지나칠 정도로 유사하다.” 분석을 진행한 김학준 연구원의 논평이다. (밑줄은 인용자)[5]

인용한 기사문에서 분석자는 메갈의 전략 자체가 애초부터 비판 대상인 여성 혐오 발화를 ‘원본’ 삼아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굳이 분석 결과가 (메갈리안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거울을 들이댄, 기사에서는 메갈의 소위 “원본”이라 일컬어진) ‘일베’[6]와 담론 구조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메갈의 미러링 화법은 비판 대상에 대한 패러디와 아이러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므로, 애초부터 비판하는 주체가 비판 대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비판하는) 자신이 분석하고 흠집 내려는 대상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비판”[7]에 해당한다. 요컨대 위 기사가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방식은 메갈을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아니다.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수치’에 의존한 분석으로 메갈에 접근하는 일은 예정된 결과를 얻기 위한 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위 기사에서 분석자는 메갈의 “담론 지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메갈리안들은 대상에 대한 공포로 인해 혐오를 무기로 공격과 방어를 일삼는 이들로 재현된다. 기사의 제목은 ‘무서운 언니들’일지언정 그 실체는 ‘비

5) 위의 글, (검색일 : 2015. 9. 20.).
6) ‘일베’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의 게시물을 올리는 이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한국의 극우주의적인 문화를 체화하여 그를 실천적으로 행사하는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한국 사회의 약자・소수자를 향한 혐오 문화를 적극 조장하는 일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다.
7) 린다 허천, 장성희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 현대미학사, 1998, 14쪽.

판 대상이 무서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 언니들'인 것이다. 따라서 기자에게 메갈리안의 발언은 여성 혐오를 일삼는 이들의 것과 다를 바 없게 되고, 메갤은 일베와 같이 무한 혐오의 원산지로 기능할 우려의 대상이 된다.[8] 그러나 이는 "행위에 덧붙여지는 허구"[9]로서의 행위자를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미러링 화법이 배태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축소하는 분석에 해당한다. 과연 메갈리안의 미러링 화법을 관통하는 정동(affect)을 '공포'라 단정할 수 있을까? "가장 극단적인 수동성"[10]의 정념에 해당하는 공포에 휩싸인 자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상대에 '맞선' 전략을 세우고, 날이 선 분석을 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견인할 수 있을까? 반복적인 여성 혐오가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위축시키게

8) 언급한 『시사IN』의 기사 외에도 '혐오 발화'를 통한 '메타 혐오'의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면서 메갈리안과 일베의 담론 구조를 유사하다고 보는 기사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김갑수 대중문화평론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큰 틀에서 볼 때 이성이나 합리주의가 사라진 기존 일베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결론을 맺은 기사로는 최훈진, 「'숨쉴한' 등 남성 비하 속어 확산… 그녀들 뿔났다」, 『서울신문』, 2015. 7. 1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717001013>, (검색일: 2015. 9.20.). 혐오를 매개로 부상하는 갈등관계를 '남성-여성 갈등'으로 상정하여 "서로에 대한 혐오를 아무런 제약이나 한도 없이 뱉어내는 이런 현상이 유지되는 것은 문제다.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사회 내 문제들을 '성별 갈등'으로 왜곡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한 기사로는 김태헌, 「막가는 온라인 남녀 갈등…'김치녀'부터 '한남충'까지 」, 『NEWS1』, 2015. 9.30, <http://news1.kr/articles/?2444978>, (검색일: 2015. 9.20.).

9) 주디스 버틀러는 "행위 이전에 행위주체가 있다는 것은 시간순서를 뒤집어놓은 인과론적 허구의 구성물"임을 지적하며 "행위주체는 설명 가능성과 책임소재에 대한 요구의 결과로 출현하게 된다"고 말한다. "행동이 먼저 있었지만 그것은 윤리적 요청으로 잊혀지"고, "그로인해 행동을 책임질 기원으로서의 주체는 사후적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버틀러의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은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164쪽.

10) "우리는 위협적인 존재를 만나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얼어붙는다. 공포는 감응능력이 직면한 극한의 추위이다. 우리는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발을 뗄 수도 없다. 판단은 마비되고 활동도 중지된다. 공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위축,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상태이다. 따라서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결코 내부적 원인이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공포의 정념은 가장 극단적인 수동성을 만든다." - 진은영, 「감응(Affect)과 유머의 정치학」, 『시대와 철학』18권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439쪽.

만드는 '억압'의 한 양태임을 이해한다면,[11] '메갈리안'의 '쓰기' 활동은 그 억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자들이 '자기검열'이라는 필터링의 강도를 최대치로 낮춘 상태에서 시작한 말하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기사는 메갈리안들이 왜 이토록 격렬하게 표현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표현의 맥락 및 말들을 위치시키는 권력관계를 교묘하게 소거했고, 그럼으로써 이들이 생성하는 힘을 손쉽게 동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여성 혐오에 대항하는 '쓰기'의 방식이 이전의 젠더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메갈리안의 활동은 여성 혐오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한 한국사회의 현재 상황에서 담론의 지형을 내파(內波)하는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메갈리안의 발화는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에 맞선 분노로부터 터져 나온 것이다.[12] 본고의 관심은 여성들이 숱한 우려의 시선을 뒤로하고 기어코 '말'하기

11) "혐오 발화와 혐오의 행위들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자리는" "모멸 및 수치심과 만나게 될 때이다. 이는 혐오 발화와 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들로 하여금 혐오의 수사를 내면화하고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수치심이란 권력을 가진 자나 전통적 공동체가 도덕이라는 잣대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길들임에 있어서 그 효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되어 온 방법론이자 가장 파괴적인 방법론 중 하나"이다. 또한, 수치심은 "개인을 그 어느 때보다도 무기력하고 허무주의적으로 만들며, 그렇게 스스로 쓰레기로서 머물도록" 한다. - 손희정, 「혐오의 시대 - 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통권 제32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5, 35쪽.

12) 메갈리안을 인터뷰한 기사를 이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겠다. 인터뷰어의 "용기인가 아니면 이제 더 차별받는 건 못 참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인가? 단순한 재미인가?"라는 질문에 인터뷰이인 메갈리안은 "메갈리안의 주축이 2~30대 여성" 이라고 답변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구직시장에서 동일한 스펙을 가졌더라도 남성지원자보다 더 열악한 평가를 받으며 취직을 하고 취직을 해서도 유리천장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인생의 전반에 걸쳐 포진해있던 여성이라 겪어야만 하는 불합리함에 분노하던 여성들"에게 메갈리아가 "기폭제"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는 메갈리안 저 자신도 자신들의 움직임에 대한 원인을 본인들에게 적층되어 있던 분노로 꼽았음을 말한다. - 김현정, 「페미니즘 운동 새 지평 '메갈리안'.. 혐오에 혐오로 맞서다!-[인터뷰] '불법몰카 근절' 캠페인 시작한 <결못남갤> 메갈리안」, 『GO발뉴스』, 2015. 6.25,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85>, (검색일: 2015. 9.20.).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있다. 여성들은 누구의 말을 읽고/듣고, 누구의 말을 쓰는가(writing/doing)? 왜 이토록 격렬하게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에 주목해야 하는가? 여전히 '말'이, '발화권력'이 문제이다. "페미니즘의 투쟁에서 핵심 과제는 우선 여성을 신뢰할 만하고 경청할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13]이다.

본고는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긴 언어가 불평등한 세상을 공고히 하는 권력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한 여성들이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14]으로 펼치는 '쓰기 활동'을 살핀다. 이때 주목하는 '쓰기'란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제한된 위치에 처해있는 이가 저 자신을 스스로 주체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쓰기 활동을 삼는 상황을 모두 포괄하여 이른다. 여성은 남성의 문자를 다시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말할 장소를 개척하는 '쓰기-주체'로 거듭난다.[15] 특히 승인된 학문의 장(場)이나 문학 장이 아닌, 제도의 가장자리에서 '쓰기-주체'들은 가부장제와 젠더 관습의 억압적 양태를 교란시키고 새로운 담론 지형을 형성하는 일을 훨씬 더 자유롭게 수행한다. 그와 같은 활동을 탐색하다보면 메갈리아에서 우세하게 활용되는 미러링 화법은 메갈리안들이 고안한 최초의 방식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쓰기-주체-되기'에 대한 해석을 진행할 때 여성의 역사 역시 다시 쓰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대상은 제도 바깥에서 수행

13) 리베카 솔닛, 김명남 역,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창비, 2015, 19쪽.
14) 양효실, 『권력에 맞선 상상력, 문화운동 연대기』, 시대의 창, 2015, 11쪽. 이 책에서 양효실은 세계의 주변부적 삶에 할당된 모욕적인 정체성이 그들 자신의 문화운동으로 어떻게 뒤집히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갔는지에 대해서 쓴다. 이 글에서 진행하는 접근 방식은 양효실의 연구로부터 영감을 받았음을 밝힌다.
15) '쓰기-주체'는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과정에 임할 때야 주체성이 발현되는 행위주체로서의 존재를 칭하기 위한 용어이다. 따라서 '쓰기-주체-되기'란, 하나의 고정된 표준을 가지는 다수성이 아니라 정초하는 표준이 없는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 '무엇이 되는' 행위를 통해 표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창조하고 변형시켜 체계를 변화시키는 '되기(devenir, becoming)'의 정치학을 쓰기 활동으로 실천하는 움직임을 일컫기 위해 들뢰즈의 용어를 참조하여 만든 표현이다. 들뢰즈의 '되기'에 대한 설명은 클레어 콜브룩, 한정헌 역, 『들뢰즈 이해하기』, 그린비, 2007, 36쪽 참조.

되는 쓰기-주체의 활동으로, 1920년대 『신여성』에 수록된 바 있던 여성의 미러링 형식의 글에서부터 시작, 최근 '메갈리아', '소셜 미디어' 등 인터넷 공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패러디와 아이러니의 수사로 이뤄진 미러링 형식의 글을 살핌으로써 이들의 글이 어떻게 대화적인 긴장을 이루고 있는지를 본다. 이를 통해 현재 거듭되는 혐오 발언이 조장하는 피로를 털어내고, 다른 담론적 지평으로의 도약이 가능할지를 검토한다.

2. 거울을 되비추며 쓰는 여성들, 저항으로의 패러디와 아이러니

정희진은 "성별 이슈에는 '과거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여성의 경험"이 "공유되지 않고" "여성의 역사"가 "전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16] 이는 젠더 관계를 관통하지 않은 언어란 없다는 진단에 따른 것일 터이다. 하지만 '같은 억압'이 되풀이되는 원인을 곧 여성의 억압 받은 경험과 해방을 위한 움직임을 공유하는 자리의 공백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여성 혐오의 역사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 반복의 고리를 생각"[17]하면서 지금까지 "침묵해야 했던 대항-목소리들"[18]을 역사의 현장으로 출연시키는 작업을 하는 편이 더 생산적이다. 그때야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사회적인 구조 및 역사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비슷한 억압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치지 않고 그에 맞서는 목소리들이 있어왔음을 상기할 때 우리는 해방을 위한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위축과 자기검열, 열패감을 상대화할 수 있다. 그러한 움직임들을 계보학적으로 연결할 때, 역사의 "광장"은 "불편하고 불쾌한 이들과 집요

16) 정희진, 「언어가 성별을 만든다」, 윤보라 외,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현실문화연구, 2015, 97쪽.
17) 류진희, 「'무기 없는 민족'의 여성이라는 거울 : 해방 직후 탈/식민 남성성과 여성 혐오를 단서로 하여」, 『문화과학』 83호, 문화과학사, 2015, 60쪽.
18) 양효실, 앞의 책, 9쪽.

하고 용감한 이들이 동석한 협상의 장소"[19]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를 통해 실패한 사례로 여겨졌던 이전의 저항적 움직임들이 실은 부단히 다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거로 역할 해왔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2장에서는 '메갈리안'들의 미러링 화법이 '패러디(parody)' 및 '아이러니(irony)'라는 수사적 전략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이러한 말하기 방식이 비단 최근의 인터넷 공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이를 위해 근대적인 남성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담론이 성행했던 1920년대에도 미러링의 형식이 여성들의 비판적인 발화 전략으로 역할 했음에 주목한다. 1920년대, "여학생의 외모나 행동이 집중적인 비판과 논란의 대상"[20]이었음을 보여주는 잡지 『신여성』에서 심상직의 「여학생의 아홉 가지 잘못」이라는 글을 비판하기 위해 송화자가 작성한 글[21]이 이 장의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 시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사치와 허영에 가득하다"면서 "적나라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노골적인 폄하"를 서슴지 않은 글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여성 혐오를 드러냈는데,[22] 특히 남학생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돈과 지위만을 좇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배금주의에서 나아가 도구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23] 면에 대한 경계를 여학생들에게 전적으로 투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노골화하여 드러낸 심상직의 글을 먼저 읽는다.

---

19) 위의 책, 9쪽.
20)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명출판, 2009, 230쪽.
21) 이 장에서 언급될 송화자의 글은 본고가 발표되기 전, 김용언이 메갈리안의 화법을 따라서 작성한 「김치년 백년사」에서 '기록될만한 여성 혐오'의 경우를 헤아리는 과정에서 언급된 심상직의 글과 함께 먼저 소개되었다. - 김용언, 「김치년 백년사」, 『DOMINO』7호, G&Press, 2015년 9월, 94~107쪽 참조. 이 장은 김용언이 소개한 자료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을 느껴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22) 김수진, 앞의 책, 230쪽.
23) 위의 책, 231쪽.

1. 어머니 압헤서만 활발하고 남의 모힌 곳에서는 벙어리 병신가치 쭉으리는 것
2. 부형의 의견은 덥허놋코 반대하고 동모들의 의견쫏는 것만 신식으로 아는 것
3. 스스로 약한체하면서 약한다는 핑계로 특별대우를 바드려 하는 것
4. 왼집안이 다-주리고라도 자기 한사람만 각구어주어야 만족하는 것
5. 어느 때던지 잘생긴 갑으로 누어서 먹고만 살려하는 것
6. 실제생활은 엇던턴지 남들에게 '그사람 잘산다'하는 말만 듯고 싶허하는 것
7. 덥허놋코 일흠난 사람이면 시집가고 십허하는 것
8. 남자의 사랑편지를 고대로 정말인줄로 밋고 있는 것
9. 까닭업시 남자가 무엇을 사보내주는 것을 깃버하는 것

– 심상직, 「여학생의 아홉가지 잘못」, 『신여성』, 1924.7[24]

인용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심상직은 "세간에 나도는 여학생에 대한 험담"[25]에 기댄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학생의 잘못'을 평가한다. 심상직의 글뿐 아니라 당시 남학생들은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여학생들을 향해 "행동이 나쁘다, 풍기가 문란하다"고 비난했다. 전차나 길거리에서 남녀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눈마주침이나 옷깃여밈 같은 몸짓" 마저도 "'유혹'이라는 코드"로 "과대하게 해석하여" 여학생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26]

당시 남학생들은 왜 이렇게까지 여학생을 공격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이 질문은 페미니즘 진영에서 오래 고민해 온 물음이기도 하다. 심상직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남성이 연애와 결혼을 통해

24) 위의 책, 231쪽에 실린 글을 재인용.
25) 위의 책, 232쪽.
26) 위의 책, 232쪽.

사회에서 한 명의 어엿한 주체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강박에 처했을 때, 그러나 그와 같은 욕망의 좌절을 경험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욕망하는 대상에게로 돌려놓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여학생이 '바란다'는 "이름난 사람"이 되거나, 여학생에게 "무엇을 사보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수월한 연애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남성의 불안이 저 글의 배면에는 있다.

윤보라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나쁜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여성을 참조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재구성된다"고 말했다.[27] 한국의 1920년대는 "19세기 서유럽에서 부르주아 계층의 주도하에 발현되었던 '낭만적 사랑'"이 "'연애'라는 기호로" 파급되어 "인간의 성, 사랑, 결혼의 욕구를 정교하게 결합시킨" 근대 연애관이 막 자리를 잡던 때이다.[28] 이때 남성에겐 근대적인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자유연애결혼의 공식과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연애'를 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와 조우하지 못한 남성들은 (자기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혐오의 대상으로 여성을 상정하는 방식을 만들어 각 사회 주체들을 배치하고 인식하는 첨예한 젠더 정치(gender politics)를 펼쳐 보였다. 요컨대 남성이 근대적인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여성은 혐오와 공모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비난은 주로 남성과 가족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고정된 역할을 행하지 못할 때 이뤄졌다.

여성을 업신여기는 내용의 글이 잡지에 수록되었을 때, 당시 여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남학생들의 여학생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들은 당시 많은 여학생들의 분노를 샀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송화자는 심상직 글의 형식을 패러디하여, 심상직의 여성 혐오적인 발화를 조롱하게 된다.

---

27) 윤보라, 「김치녀와 벌거벗은 임금님들 : 온라인 공간의 여성 혐오」,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윤보라 외, 현실문화연구, 2015, 16쪽.
28) 서지영, 『역사에 사랑을 묻다』, 이숲, 2011, 313~314쪽.

1. 집안 녀자에게만 잘난체하고 정말 난체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몰너스는 것
2. 부형의 의견은 덥허놋코 반대하고 동모들의 의견쫏는 것만 신식으로 아는 것
3. 공연히 '남자라-'하는 갑으로 집안에서도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
4. 부모나 어린 동생이 모다 밝아벗고라도 자긔출입만 번번하게 꿈여주면 만족하는 것
5. 가티할 고생도 안해에게만 식히거나 어머니나 누의에게만 식히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아는 것
6. 실제 생활은 엇더턴지 남들에게 '그사람 잘산다 그사람 잘낫다'하는 말만 듯고 십허하는 것
7. 덥허놋코 얼골만 반반한 사람에게는 장가들려고 하는 것
8. 잡된 여자가 아첨하는 말을 고대로 정말인 줄 밋고 밋치는 것
9. 지나가는 여자가 딴생각에 우서도 자긔보고 웃는 줄 아는 건방지고 뻔뻔하고 주저넘은 것

– 송화자, 『신여성』, 1924.10[29]

송화자의 글은 심상직 글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심상직이 제기한 번호에 일대일 대응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했다는 얘기다. 심상직이 '남이 모인 곳에서 벙어리 병신같이 있는 것'이라면서 여학생을 비하할 때, 거기에 맞선 송화자는 남학생이야말로 '집안에서는 잘난 척하다가도 필요할 때는 물러선다'고 묘사한다. 여학생을 향해 '약하다는 핑계로 특별대우를 받으려 한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갖추었다고 비난하는 내용은, 송화자가 비춘 거울 속에서는 '공연히 남자라는 이유로 집안에서도 특별대우를 바라는' 남학생으로 역전되어 이러한 남학생이야말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환된다.

29) 김수진, 앞의 책, 233쪽에 실린 글을 재인용.

송화자의 글에서 재현되는 남학생의 모습은 '고생은 아내나 어머니, 누이에게만 시키고 그것을 당연하게 아는' 이들이므로,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들의 여학생을 재현하기 위한 목소리는 무턱대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읽힌다. 송화자는 패러디를 통해 기존의 텍스트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게" 만들면서 '여학생'에 대한 기존의 재현 또한 문제 삼는 "재현의 '정치성'"을 전면에 드러낸 셈이다.[30]

이 시기 여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적인 비판이 다양하게 존재했다는 점은 역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이라는 존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여학생들에 대한 혐오를 본격화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지위가 그만큼 위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생겨날 수 있는 두려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 남학생들의 혐오 발화는 발화주체가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상징자본을 극대화시키"기 위해[31] 활용했던 방법의 한 가지라 할 수 있다.

반면 송화자의 경우, 남학생의 혐오 발화를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아 혐오를 공표한 이들에게 불쾌를 안기는 방식으로 대항한다. 그를 통해 혐오 발화를 했던 이들이 공포의 대상이 아닌 '별 게 아닌 존재'로 전락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유머를 통해 통제와 억제로부터, 표면적인 세계 가치의 수용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인지로부터 풀려나는 방식"[32]과 상통하는데, 송화자가 구사하는 유머감각이란 "상한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33] 행해지는 것이자 그를 통해 (독자가 알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남학생과 (그러한 남학생으로 인해서 독자가 편견을 갖게 된 대상으로서의) 여학생의 기존 이미지를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구사된다.

송화자가 패러디를 통해 구사한 유머는 또한, 아이러니의 기능 중 하나

30) 린다 허천, 앞의 책, 156쪽 참조.
31) 손희정, 앞의 글, 37쪽.
32) Harvey Mindess, *Laughter & Liberation*, Transaction Publishers, 2011, p. 30.
33) *Ibid*, p. 32.

인 습격적인(assailing) 측면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린다허천은 아이러니가 발화자의 주변을 맴도는 '동의할 수 없는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 예리한 조롱을 던짐으로써 파괴적인 공격을 일으키는 '습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34] 이는 송화자가 구사한 전략이 송화자의 글에 동조하든 동조하지 않든 간에 담화에 참여하는 이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까지도 '공격에 노출된 듯한' 기분을 선사함으로써 판단의 태도를 보이게끔 요청하는 방식임을 알게 한다.[35]

송화자의 쓰기 활동은 그간 사회적으로 침묵을 강요받은 자리에 있던 이들을 가시화하면서 기존의 담론 구도가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울어진 형식"임을 보여준다.[36] 이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발화를 거울에 되비추며 쓰는 여성들의 패러디와 아이러니를 이용한 미러링 형식의 쓰기 방식이 점하는 정치성이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하는데, 그 내용은 3장에서 이어 다루기로 한다.

3. '쓰기-주체-되기'의 정치성

앞서 확인한 1920년대 남성의 서술에서는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여성혐오'적인 발화의 맥락과 유사한 내용이 빈번하게 보였다. 이는 윤보라가 "최근의 '여성 혐오' 현상이 높은 청년 실업률이나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의한 남성의 좌절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은 섣부른 단정"[37]이라고 평가했던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과 자원이 부족한 낮은 계층의 남성이 주로 여성을 증오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지

34) Linda Hutcheon, *Irony's Edge*, Routledge, 1994, pp. 53~54.
35) 아이러니는 담화에 참여한 발화자들과 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들이 "정동적인 차원"에 들어설 수 있도록 "평가의 속성" 및 "판단의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수사적 전략이다. *Ibid*, p. 37. 참조.
36) *Ibid*, p. 37. 참조.
37) 윤보라, 앞의 글, 35쪽.

않는"[38]것이라면, 여성 혐오에 대한 문제는 근대적인 현상의 일부로 존재하는 젠더 관계의 불균형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는 여성의 주체성을 삭제하는 작업들이 계속 적층되어 왔음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금 시대의 특수한 정동으로서의 혐오가 발휘하는 억압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젠더 관계의 불균형적인 힘의 구도 속에서 삭제되어왔던 저항의 목소리들을 역사의 한복판으로 출연시킬 때 확인할 수 있는 '쓰기-주체'는 첫째, 패러디와 아이러니를 활용한 화법을 구사함으로써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인해내고,[39] 둘째, 그러한 방식을 통해 격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말을 듣거나/읽는 이를 담론에 참여시켜 결과적으로는 대화적 전환을 이루어내는 활동을 한다.

'쓰기-주체'는 쓰기 활동을 수행하는 속에서 지속적인 '감정이입'의 상황을 글을 읽는/듣는 이들에게 요청한다. 따라서 쓰기-주체들의 활동은 여성 혐오적인 문화의 교류를 통해 세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하나의 단일하고 강고한 남성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자들의 동성 사회성(homo-sociality)을 추구하는 '남성 연대적인' 방식과는 구분을 짓고 살펴야 한다.[40] 다시 말해, 쓰기-주체의 수행을 통해 이뤄지는 '대화적 전

38) 같은 글, 35쪽.

39) 아이러니는 굴복시킬 수 없는 언어의 형태이다. 이것은 지배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도 없다. 아이러니는 언제나 이것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이것으로 권력을 잡으려 하는 자들을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Linda Hutcheon, *Ibid,* p. 37.

40) '쓰기-주체'의 수행 속에 이뤄지는 대화적 전환이 야기하는 정치성은 리처드 세넷이 언급한 '감정이입'의 방식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리처드 세넷은 사회의 경제적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감당해야하는 폭압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금 시대에 '공동체'를 재구상하기 위한 방식으로 '감정이입(empathy)'을 제안하면서 '공감(sympathy)'과 '감정이입'이 다른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한다(국역본에서는 'sympathy'를 '공감'으로 번역했지만, 이 개념은 '동정'으로 읽히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공감"과 "감정이입"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모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공감"의 경우는 타인과의 동일시로 이어지기가 더 쉽다. '공감적 반응'은 상대를 '모방'하는 일을 더욱 부추기면서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변증법적 연극을 위한 하나의 감정

환’은 교환되는 말의 의미를 단단히 고정하는 방법보다는 현실과의 지속적인 접촉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동원하고 종국에는 “여지를 주는 반응들”[41]을 끌어내기 때문에 ‘열린 구조’의 담론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쓰기-주체의 수행성이 발휘되는 현장을 인터넷 공간에서 살핀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쓰기 활동은 구술성의 특징을 포함하여 대화적인 전환을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이뤄내는 현장을 마련한다. 이는 바뀐 매체 환경에 적응한 쓰기-주체들의 활동이 ‘구술’과 ‘쓰기’의 이분법을 무효화시키고 쓰기의 저변 자체를 확장하면서 그를 통해 억압에 대항하는 발화 권력을 획득해가고 있음을 보이는 방식이기도 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더군다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자기 고백적인 서사를 ‘폭로’의 방식으로 전환해내는 활동은 데이트폭력, 성폭력과 관련한 사안을 ‘누구의 문제로 사건화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또한, ‘메갈리아’와 같은 커뮤니티에서의 쓰기 활동은 공통의 사안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통해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용어’를 정의하고 새롭게 생성한 말로 실천적인 행동을 꾀한다.[42]

적 보상”으로 기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감정이입”은 “그 자신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화적 교환”과 더 많이 연결된다. “애도의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겪는 시련에 끼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감정이입은 유별나게 정치적으로 많이 응용된다.” 리처드 세넷은 ‘감정이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은 ‘모방’이 아닌 상대의 얘기를 “듣는” 기술이므로, 끊임없이 대화적 관계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방식으로 ‘감정이입’은 용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들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활용한 패러디 및 아이러니의 말하기, 미러링의 화법은 단순히 혐오하는 이를 ‘모방’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혐오 발화가 성행하는 상황 자체를 귀 기울여 ‘듣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데에 초점을 둔다. - 리처드 세넷, 김병화 역, 『투게더』, 현암사, 2013, 49~55쪽. 참조.

41) Linda Hutcheon, *op. cit.,*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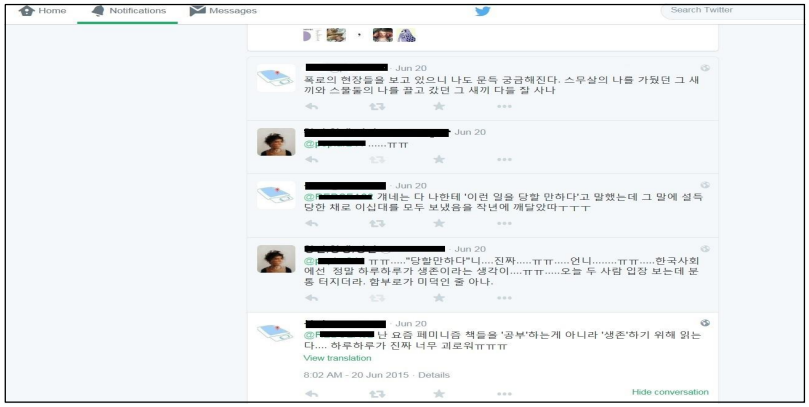
42) 제프리 골드파브는 새로운 미디어 지형에서 이뤄지는 움직임을 ‘작은 것들의 정치’라는 명명을 통해 의미화 하면서 ‘작은 것들의 정치’가 가진 중요성은 이들이 “정의하는 힘”을 발휘하는 데에서 온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용어들을 정의해야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 제프리 골드파브, 이충훈 역,

3.1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를 고백하기 위한 쓰기 활동의 경우

2015년 6월, 소위 '진보 남성 지식인'으로 알려졌던 이들의 데이트 폭력 건이 온라인에서 알려진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그간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고백하는 여성들의 발언이 터져 나왔다.[43] 자기 경험에 대한 고백은 이후 소셜 미디어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의 '댓글'과 '맨션'으로의 화답을 통해 '데이트 폭력'을 이슈화하는 데에 힘을 더하게 된다. 소셜미디어상에서 자기고백으로 분출된 표현들이 사회적 증언으로 자리 매겨진 것이다.

『작은 것들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1, 146쪽.

43)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을 아끼는 남성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해당 사건을 다룬 칼럼이나 학술적 관심은 여성들의 분노에 비해 상당히 드물었다. 김홍미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남성'으로 살아온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중지하겠다는 이들과 더 이상의 질문 없이 안전한 범주를 고수하며 맴도는 말들을 끌어내지 않겠다는 논객들은 이후 데이트폭력 폭로를 둘러싼 침묵의 연대에 합류한다. 애초에 이 일에 관심이 없었거나 추후에 관심을 거둔 이들 모두 데이트폭력 폭로 이후에 국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들은 없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굳건한 침묵이 꾸준히 유지될 수는 없다. 개입을 꺼리는 정서가 이들에게 깊이 공유되지 않는 이상 말이다. 그들 중 누군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폭로 이후 가해자들의 근황과 사건이 변화되는 추이를 듣곤 하겠지만 공적 논의의 장으로 이것을 들고 오는 이는 없었다." (김홍미리, 「'청년 진보논객' 데이트폭력 폭로로 달궈졌던 6월의 여름날을 기억하며」, 『여/성이론』통권 제33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12, 170~171쪽.)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 폭로된 시기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사건의 가해자 두 명은 피해자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그림 1> 소셜미디어(트위터) 상에서 데이트 폭력 고백 사례

첨부한 <그림 1>은 2015년 6월, 트위터에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나눈 대화이다. '계정 A'는 자신의 경험을 불특정 다수의 친구와 관계를 맺은 트위터상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씀으로써, 자신이 당한 피해를 단순한 자기고백에 그친 '쓰기'가 아니라 한 명의 사회구성원이 피해를 입었던 폭력의 일환으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고발로 전환해낸다. 그 과정에서 '계정 A'는 그에 응답하여 '멘션'을 보내는 '계정 B'의 반응을 통해 페미니즘을 "생존의 언어"로 의미화 한다.

본고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을 첨부하였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상당수의 계정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트위터 사용자들은 '리트윗'의 방식으로 자신과 관계를 맺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여성이 데이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공유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트위터 사용자의 경우, 그간 혼자서 삭여왔던 분노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가해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많음을 인식함으로써 '내가 트위터에서 표현하는 말'이 부당한 것은 아님을, '나 자신이 특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지냈던 것은 아님'을 상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트위터 사용자들의 공유는 이후 '데이트 폭력'이라는 계정

등이 따로 생성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 계정 등은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데이트 폭력'의 정의와 연애 관계에서 실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계정이다.

<그림 2> '데이트폭력' 계정의 타임라인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를 고백하기 위한 '쓰기' 활동의 경우, 매체의 파급력을 활용한 정치적 운동의 한 사례인 온라인에서의 해시태그 운동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44]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해시태그 운동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는 마치 유행하는 옷을 꺼내 입는 행위처럼 그 선언을 한 이가 자기 자신을 장식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했던 활동이 아니다. 운동에 참여한 이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선언함으로써 이 말을 쓰게 된 맥락을 다른 이들에게 전면화할 수 있는 동기를 얻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상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 고백 역시 사적인 영역이라 치부되어 가시화되지 못했던 폭력의 현장을 전면화하고

44)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운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혜영, 「낙인, 선언 그리고 반사 :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문화과학』83호, 문화과학사, 2015, 104~121쪽 참조.

이것이 개인의 일이 아님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들 소셜미디어의 매체적 특징을 활용한 쓰기 활동은 쓰기-주체로 하여금 '전형적인 피해자 이미지'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해석할 줄 아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든다. 쓰기 주체가 '되는' 실천으로 혐오라는 정동과 억압의 양태를 가로질러 가는 상황을 도모하는 것이다.

쓰기 활동이 진행될 때 개입하는 현실의 복잡한 맥락은,[45] '쓰기 활동' 그 자체가 당장 혐오 발화를 '깨부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대신에 담화 상황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상황을 '누구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를 질문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끈다. 이는 제도의 가장자리에서 이뤄지는 '쓰기'의 자장 자체를 확장하는 활동이 기존의 지배적인 목소리에 균열을 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화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가능성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메갈리안들의 쓰기 활동의 경우

"어떤 표현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표현 대상이 상징하는바, 또는 실제 현실에서 대상이 차지하는 위치나 위상에 따라 이루어져야"[46] 함을 염두에 두고 1장의 시작과 함께 언급했던 '메갈리아'로 시선을 던져보자.

---

45) 폭력 사례에 대한 폭로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현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어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 혐오자'들로부터 숱하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받는 상황, 한국 사회의 끊이질 않는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해 내려지는 부당한 판결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젠더 의식을 확인하는 상황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46) 조주영, 「관용의 역설-우리는 무엇을 참아내야 하는가?」, 『여/성이론』 통권 제32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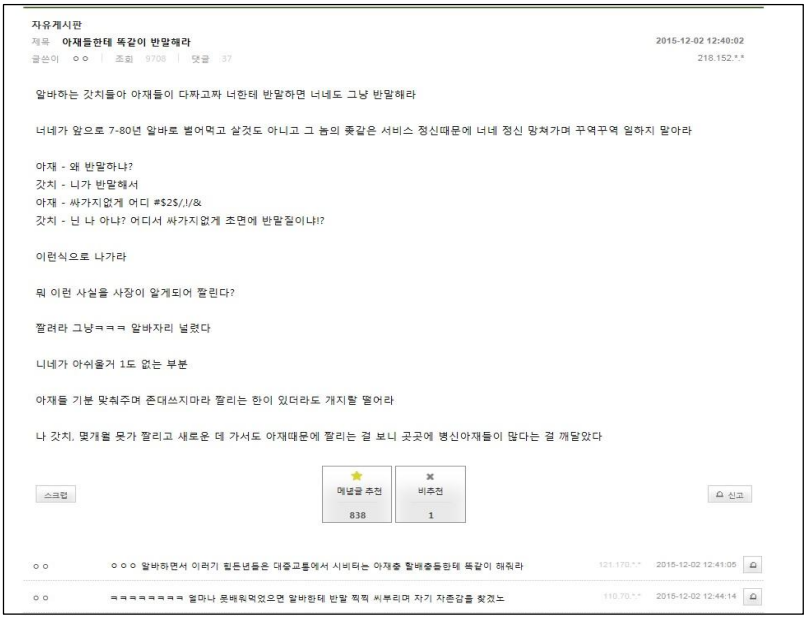
<그림 3> 메갈리아 사이트의 첫 화면

<그림 3>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메갈리아 사이트에 수시로 올라오는 글이 패러디 및 아이러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데에 있다.

'일베' 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현재 무시와 조롱의 대상을 향해 '충(蟲)'자를 사용, 혐오의 대상으로 지목당한 이들을 '인간도 아닌' 존재로 재현하고 있다. 메갈리안들은 그러한 용어 사용법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여성 혐오를 일삼는 이들과 여성 혐오를 가능하게 했던 사회를 향해 똑같은 방식으로 그 말을 돌려준다.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주로 활용하는 종결어미 '-이기야', '-노'의 경우도, 일베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을 가지고 온 경우라 할 수 있다. 린다 허천은 '패러디'란 패러디한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그와 거리를 두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추출하는 수사적 전략으로 보았다. 이때 패러디가 작동하는 원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주는 계기를 아이러니가 제공하게 되는데,[47] 메갈리안들이 구사하는 미러링 화법은 혐오 문화를 조장하는 이들의 언어를 가지고 오는 동시에 비판적인 담화 구도 속에서 그와 거리를 둠으로써 대적하고

47) Linda Hutcheon, *op. cit.*, p. 3.

있는 대상의 언어를 무기로 삼는 것이란 의미에서 패러디와 아이러니의 방식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자유게시판
제목 아재들한테 똑같이 반말해라 2015-12-02 12:40:02
글쓴이 ㅇㅇ | 조회 9708 | 댓글 37 218.152.*.*

알바하는 갓치들아 아재들이 다짜고짜 너한테 반말하면 너네도 그냥 반말해라

너네가 앞으로 7-80년 알바로 벌어먹고 살것도 아니고 그 놈의 좆같은 서비스 정신때문에 너네 정신 망쳐가며 꾸역꾸역 일하지 말아라

아재 - 왜 반말하냐?
갓치 - 니가 반말해서
아재 - 싸가지없게 어디 #2/;!/&
갓치 - 닌 나 아냐? 어디서 싸가지없게 조면에 반말질이냐!?

이런식으로 나가라

뭐 이런 사실을 사장이 알게되어 짤린다?

짤려라 그냥ㅋㅋㅋ 알바자리 널렸다

니네가 아쉬울거 1도 없는 부분

아재들 기분 맞춰주며 존대쓰지마라 짤리는 한이 있더라도 개지랄 떨어라

나 갓치. 몇개월 못가 짤리고 새로운 데 가서도 아재때문에 짤리는 걸 보니 곳곳에 병신아재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스크랩 메갈로 추천 838 비추천 1 신고

ㅇㅇ ㅇㅇㅇ 알바하면서 이러기 힘든년들은 대중교통에서 시비터는 아재중 할배중등한테 똑같이 해줘라 121.170.*.* 2015-12-02 12:41:05
ㅇㅇ 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나 못배워먹었으면 알바한테 반말 찍찍 씨부리며 자기 자존감을 찾겠노 110.70.*.* 2015-12-02 12:44:14

<그림 4> 메갈리아 사이트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중 일부 (1)

첨부한 <그림 4>는 작성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무시를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사장이 반말을 하면서 무시를 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라는 게시자의 대안은 가상의 상황을 상상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온 '아저씨 문화'에 대한 조롱의 의미가 포함되어 다른 메갈리안들의 웃음을 유발한다. 패러디와 아이러니를 통해 발휘되는 메갈리안들의 유머는 "과도한 진지함과 심각함, 소심함과 호들갑 등으로 범벅된 공포의 상태에 갑작스런 충격"을 전하면서, 발화자 스스로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의 위축된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사건들을 새로이 구성하는 내부적인 원인으로"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48]

한국사회의 빠른 변동 속에서 "지난 20여 년간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공간으로 자리한" 인터넷 공간에서 현재 "유머와 '드립력'"은 "주체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권력을 분배하는 최종 심급"이 되었다.[49] '드립'을 통한 '혐오'의 방향이 동성 사회성의 강화를 위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 혐오나 호남 혐오, 이방인 혐오와 같은 소수자들에 대한 '조리돌림'은 정당화됐었다. 이러한 "혐오 발언 안에는 주목을 통해 자신이 행위 주체임을 인정받으려는 '주체화의 열정'이 들어" 있으므로,[50] 이들의 '드립'을 통한 조리돌림은 타자에 대한 억압으로 주체화를 이루는 방편으로 활용됐던 셈이다. 하지만 '메갈리안'의 '쓰기 활동'에서 활용된 '유머'는 '조리돌림'과는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메갈리안의 유머는 기존의 '조리돌림'을 신속히 대상화하여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상황에 대한 한 명의 적극적인 가담자로 전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머의 핵심은 처벌과 그에 따르는 고통의 사소함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가혹한 억압에 대해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님"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데에 있다.[51]

'메갈리안'의 쓰기에서 활용하는 전략을 패러디 및 아이러니로 이해할 때, 이들의 '미러링 화법'은 "지독하게 날 선(edged)"[52]비평의 방식으로 형성된 유머로 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린다 허천이 설명한 '아이러니'의 화법은 상대를 '적대'하거나 '경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에 가깝다.[53] 따라서 경멸의 대상이 스스로 자신이 행한 방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러니의 '날 선' 화법은 "비판의 대상(targets)과 가해자들

48) 진은영, 앞의 글, 443~446쪽 참조.
49) 윤보라, 앞의 글, 40~44쪽 참조.
50) 임옥희, 「주체화, 호러, 재마법화」, 윤보라 외,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현실문화연구, 2015, 56쪽.
51) 가라타니 고진, 이경훈 역, 『유머로서의 유물론』, 문화과학사, 2002, 127쪽.
52) Linda Hutcheon, *op. cit.,* p. 39.
53) *Ibid*, p. 39.

(perpetrators), 공모하는 청중들(complicitous audience)"[54]이 있을 때 성공한다. '블랙 코미디'를 연상케 하는 메갈리안들의 화법은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익명성'의 글쓰기를 더욱 극대화함으로써, 씌어진 글 자체를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텍스트로 공유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든다. 메갈리아 사이트의 관리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매번 바뀌며, 이들은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이들에게 아이디를 빈번하게 자주 바꿀 것을 권유한다. 그 덕분에 불특정 다수의 메갈리안들의 대화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메갈리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메갈리안 코스프레'를 하며 글을 작성하는 사용자에 대한 자정 작용이 빠르게 이뤄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말하기 방식을 통해 메갈리안들은 자신이 강간을 당할 뻔한 사연에서부터 실제 성폭력을 당한 사연,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 무혐의로 판결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및 그 조치에 대한 논의, TV 프로그램의 여성 혐오적인 내용 고발 등등에 대해 쓴다. 또한 그러한 내용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면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용자들도 겪은 바 있고, 자신이 생각한 바가 고립되어 있는 내용이 아님을 접하고, 그간 자신이 억압받아왔던 사례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얻는다. 이는 쓰기 주체가 쓰기 활동을 수행하는 속에서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공포로 느끼는 일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54) *Ibid*, p. 40.

자유게시판

제목 왜 메갈이고 워마드고 180명몰카남 얘기가 없노 2015-12-23 11:04:16

글쓴이 ㅇㅇ | 조회 3014 | 댓글 38 175.125.*.*

180명 몰카 찍은 의전원새끼가 산부인과 의사 되게 생겼는데 왜 조용하지
조선대폭행남이랑 비슷한 급 아니노?

스크랩 메갈글 추천 237 비추천 0 신고

ㅇㅇ 산부인과 의사였다고???? 1.216.*.* 2015-12-23 11:05:50

ㅇㅇ ㄴ 산부인과로 진로 정해서 냅두면 산부인과로 간다 175.125.*.* 2015-12-23 11:08:35

ㅇㅇ ㄴ'되려고'하고 있다ㅇㅇ 근데 의사 놈 중에도 몰카충 있더라 211.36.*.* 2015-12-23 11:09:00

ㅇㅇ 이건 어떻게 조저야되지 알려주실분?? 220.87.*.* 2015-12-23 11:11:37

ㅇㅇ ㄴ서명운동이나 법무부 항의 넣자는 말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좋선대 사건처럼 크게 화아아악하지를 않고 있다 이기 211.36.*.* 2015-12-23 11:13:39

ㅇㅇ 차병원 180.231.*.* 2015-12-23 11:14:58

ㅇㅇ ㄴ내가 머가리가 딸려서 법무부에 항의 넣는법을 모름 서명운동이라면 할 용의가 있는데 어디서 하지 220.87.*.* 2015-12-23 11:15:21

ㅇㅇ www.moe.go.kr/web/100002/site/contents/ko/ko_0002.jsp 우선 교육부 민원 링크다 116.131.*.* 2015-12-23 11:19:02

<그림 5> 메갈리아 사이트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중 일부 (2)

첨부한 <그림 4>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일삼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한 폭로 및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에 관한 메갈리아 사이트의 게시물 중 일부이다. 댓글에서 제기되는 대응 방식은 상당히 실천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이처럼 메갈리안의 쓰기 활동은 최근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령 2015년 12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에 1,800만원 기부한 일, 성인사이트 소라넷을 통해 공공연히 유통되던 몰래카메라 사진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 해당 이슈를 뜨겁게 공론화시킨 일, ≪맥심 코리아≫9월호에 여성 납치 범죄를 연상시키는 커버 사진이 사용되자 지속적인 항의와 청원으로 ≪맥심 코리아≫측의 사과문을 받아낸 일, 소셜 커머스 회사의 초소형 몰래카메라 판매에 항의함으로써 해당 판매를 중지시킨 일 등 '메갈리안'의 활동은 오프라인상에서도 다양하게 번지고 있다. 이는 억압에 대항하기 위해 수행적으로 형성한 '쓰기-주체'들의 활동이 공동체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일 것이다. 이들의 '쓰기-활동'은 지금도 단순히 문제 상황에 대한 폭로를 넘어서서 불평등하게 형성된 젠더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행위의 자리를 마련 중이다.

4. 결론 : 혐오와 공감이라는 뫼비우스의 띠에서 쓰기

본고는 지식의 객체와 주체를 분리하던 종래의 쓰기 방식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쓰기의 가능 조건'을 탐문하고 '쓰기'의 정의를 이루는 활동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말할 장소를 개척해온 사례를 살폈다. 1920년대 잡지 『신여성』에 수록된 바 있었던 심상직의 「여학생의 아홉 가지 잘못」을 반박하기 위한 송화자의 글,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를 고백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쓰기 활동, 메갈리안들의 쓰기 활동과 같이 승인된 학문의 장이나 문학 장이 아닌 '제도의 가장자리'에서 행해졌던 활동이 해당 사례에 속한다. 이와 같은 활동 속에 탄생하는 '쓰기-주체'들은 젠더 관습의 억압적 양태를 교란하는 전략으로 패러디 및 아이러니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견인해내고 대화적인 전환을 이뤄낸다.

타인과의 동일시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공감'의 구조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형성되는 '혐오'의 구조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있음을 상기했을 때, 혐오 문화를 가로지르는 '쓰기-주체-되기'의 정치성은 '이쪽 편'과 '저쪽 편' 중 특정한 어느 자리에 속해 목적의식적인 저항성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방식과는 거리를 둔다. 그보다는 쓰기 활동으로 형성되는 담론 상황에 개입하는 많은 이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식하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 그 정치성을 발휘한다고 봐야 한다. '쓰기-주체'의 수행적인 활동은 필연적으로 '대화적인 교환'을 요청하면서도, 또 다른 담론적 실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는 출발점으로 역할을 한다. "페미니즘이 대화의 정치학(dialogical politics) 형식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에 조금이나마 정당성이 존재한다면"[55] 젠더관계가 불균형한 사회에서 대화적인 전환을

55) 리타 펠스키, 김영찬 · 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31쪽.

이뤄내는 여성들의 쓰기 활동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식수(Helene Cixous)는 『메두사의 웃음』에서 "너를 써라, 너의 몸은 반드시 들려야 한다"라고 여성들에게 촉구하면서 여성의 욕망에 대한 억압은 여성 언어의 억압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여전히 '격렬하게' '더' '말' 해야 한다. 쓰기 이후에 도착할 곳이 어디인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쓰기 활동은 우리를 어디로든, 어디에든 데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명출판, 2009, 230~233쪽.

메갈리아 사이트 (http://www.megalian.com) 게시물

2. 단행본

서지영, 『역사에 사랑을 묻다』, 이숲, 2011, 313~314쪽.

양효실, 『권력에 맞선 상상력, 문화운동 연대기』, 시대의 창, 2015, 9~11쪽.

윤보라 외,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현실문화연구, 2015, 35쪽, 40~44쪽, 56쪽, 97쪽.

임옥희,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164쪽.

가라타니 고진, 이경훈 역, 『유머로서의 유물론』, 문화과학사, 2002, 127쪽.

제프리 골드파브, 이충훈 역, 『작은 것들의 정치』, 후마니타스, 2011, 146쪽.

린다 허천, 장성희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전략』, 현대미학사, 1998, 14쪽, 156쪽.

리베카 솔닛, 김명남 역,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창비, 2015,

19쪽.
리처드 세넷, 김병화 역, 『투게더』, 현암사, 2013, 49~55쪽.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31쪽.
클레어 콜브룩, 한정헌 역, 『들뢰즈 이해하기』, 그린비, 2007, 36쪽.

Harvey Mindess, *Laughter & Liberation*, Transaction Publishers, 2011. pp. 30~32.
Linda Hutcheon, *Irony's Edge*, Routledge, 1994, p. 3, pp. 37~40, pp. 53~54.

3. 논문
김홍미리, 「'청년진보논객' 데이트폭력 폭로로 달궈졌던 6월의 여름날을 기억하며」, 『여/성이론』 33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12, 166~180쪽.
류진희, 「'무기 없는 민족'의 여성이라는 거울 : 해방 직후 탈/식민 남성성과 여성혐오를 단서로 하여」, 『문화과학』 83호, 문화과학사, 2015, 48~61쪽.
손희정, 「혐오의 시대 - 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통권 제32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5, 12~42쪽.
조주영, 「관용의 역설-우리는 무엇을 참아내야 하는가?」, 『여/성이론』 32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5, 43~56쪽.
조혜영, 「낙인, 선언 그리고 반사 :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문화과학』 83호, 문화과학사, 2015, 104~121쪽.
진은영, 「감응(Affect)과 유머의 정치학」, 『시대와 철학』 18권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421~456쪽.

4. 기사
김용언, 「김치년 백년사」, 『DOMINO』7호, G&Press, 2015년 9월, 94~107쪽.
김태헌, 막가는 온라인 남녀 갈등…'김치녀'부터 '한남충'까지」, ≪NEWS1≫,

2015. 9.30, <http://news1.kr/articles/?2444978>, (검색일: 2015. 9.20.).

김현정, 「페미니즘 운동 새 지평 ‘메갈리안’.. 혐오에 혐오로 맞서다!-[인터뷰] ‘불법몰카 근절’ 캠페인 시작한 <결못남갤> 메갈리안 , ≪GO발뉴스≫, 2015. 6.25,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85>, (검색일: 2015. 9.20.).

천관율, 「‘메갈리안’… 여성혐오에 단련된 ‘무서운 언니들’」, 『시사IN』 418호, 2015. 9. 17,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50> (검색일 : 2015. 9. 20.).

최훈진, 「‘숨쉴한’ 등 남성 비하 속어 확산… 그녀들 뿔났다 」, ≪서울신문≫, 2015. 7. 1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717001013>, (검색일: 2015. 9.20.).

Abstract

Politics of Becoming the Writing-Subject

Yang Kyung-Eon

This study examines women's writing, which is part of discursive practice. The writing encompasses all forms of writing activities by those who are not allowed to speak out but struggle to make their voices heard as a subject. Rewriting the words dominated by men's view, women can pioneer a space for free speech. For this reason, writing activity by women should be encouraged and emphasized in the society dominated by gender inequality.

This paper explores outside of academic world in which performativity of the writing subjects is executed, specifically, *Shinyeoseong*, a Korean magazine in the 1920s. In this magazine, women were hated and belittled by men who became subjects in the modern society. Women, however, did not sit on their hands and stand up against such view by writing articles full of parody and irony.

Such confrontations are witnessed on the internet these days. Women's confession of painful stories on social media, for example, is changed into disclosure to the public, thereby generating discourses on who is to blame for dating abuse and sexual assault. Women's writing activities on online communities such as *Megalia* also give women opportunities to contemplate what to do in dealing with gender inequality issues.

Thus, the writing-subjects come to be recognized when their voices, which have been mute in history of gender inequality, begin to be heard by writing, and what they can do is as follows: first, the writing-subjects criticize those with greater power in relationship by making use of irony and parody in writing; second, such critiques spark heated discussions, thereby changing the writings into conversations with listeners/readers of the critiques. The change to conversation produced by performativity of writing-subjects, in the end, generates open discourse.

Key words : Mirroring Speech, Hatred for Women (Misogyny), Gender Inequality, Writing, Megalia, Mers Gallery, Megalian, Writing-Subjects, Becoming the Writing-Subject, Shinyeoseong, Song Hwa-Ja, Parody, Irony, SNS, Twitter

■ 본 논문은 2015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